1등 은혜 평강, 2등은 불길함

(예레미야 37장 1~21)

11.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3.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먀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4.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15.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1등 은혜 평강, 2등은 불길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1등 은혜 평강, 2등은 불길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십자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덩어리로 만드시는 작업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나신 은혜덩어리의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 사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 중에 1등입니다. '평강'이란 단순히 근심 없는 마음상태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이전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곧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자 산 아래에서 가졌던 모든 계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평강이 1등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등 은혜가 있으면 2등 은혜도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등이 평강이었으니 2등은 이 세상에서의 돈이나 건강 혹은 형통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2등 은혜는 바로 불길함입니다. 불길함이 은혜라니 무슨 뜻일까요?
불길함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소 의아하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겁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5학년 아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 6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유급하기를 바란다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6학년이 되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영적으로는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평강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길함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평강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에 이 불길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길함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황과 상관없는 마음의 불길함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마음의 불길함을 없애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2등 은혜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길함을 계기로 삼아 1등 은혜인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부푼 희망 못지않게 불길함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불길함을 쫓는 행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길함을 액(厄)과 살(煞)이라는 말로 표현해왔습니다. '액땜을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액막이'라고 해서 부유한 집에서 가난한 집 아이를 데려다가 돈을 주며 액을 덮어씌우는 무속 행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액'은 곧 모질고 사나운 운수입니다. 불길함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불길함을 쫓는 행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길함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길함을 잘못 받아들이는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길함이라는 잘못된 반응이 액이라는 반응을 만들어내고 '액땜, 액받이, 액막이'라는 주술적 방법들을 실천에 옮깁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서 100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으레 '액땜한 셈 치라'는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일어날 불길한 액들에 대한 값을 치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값이 치러지지도 않으며, 일 년 동안 내게서 일어나는 액들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액막이를 한다고 해서 내 아이에게 다가올 액이 다른 집 아이에게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풍습을 보면 동지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붉은 팥이 불행을 가져오는 악귀를 막아준다는 민간신앙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떠한 효과도 가지지 못합니다. 불길함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煞)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은 재앙을 뜻하는 액을 가져오는 기운입니다. 불행한 상황이나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기운이 살입니다. '역마살이 끼었다, 망신살이 뻗쳤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역마살(驛馬煞)은 사람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여 떠돌게 하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망신살(亡身煞)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인간관계나 체면을 망가지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 밖에도 흉살(凶煞)은 열두 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상문살(丧门煞)이라고 합니다. 상갓집에 온 문상객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씌워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만 불길함에 대한 거리낌이 이렇게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불길함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불길함은 그저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불길함을 마냥 나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응도 잘못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민간신앙과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길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1등의 은혜는 아니지만 2등의 은혜입니다. 이 불길함을 받아들여서 1등의 은혜인 평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남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때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었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항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강경한 주전파(전쟁을 주장하고 바벨론에 대해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자들)들이 시드기야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BC.588년부터 3년간 포위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 밀사를 보내어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요청에 응해 지원군을 보내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군대와 마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를 잠시 거두었고 잠시나마 포위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망이 풀린 틈을 타서 자기 고향 아나돗의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 맞고 토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예레미야는 기회만 있으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집요하게 바벨론에 의한 조국의 멸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면서 항복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이 잠시나마 풀리게 되자 시드기야 왕과 강경파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이기고 결

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멸망의 예언을 고수합니다.
예레미야가 BC.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활동을 하였는데, 이때가 BC.588년이었으니 40년 세월 동안을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외쳐왔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다 나라 안에 불길함의 원천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다녔으니 미움을 살만도 했습니다.

당시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난민으로 인정받아 타국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멸절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길뿐입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재산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액운의 종합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액운의 종합세트를 받아들이라고 40년간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에 불길함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던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시절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불길함을 조성하여 예레미야가 취할 수 있었던 이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기꾼들과 사이비종교들은 두려움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집 팔고 논밭을 팔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불길함을 조성해서 무엇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언활동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단지 불길함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존재는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든지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는 불길함이 오히려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 불길함의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힘든 내용이었다는 것이 본문 9~10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설령 유다 군대가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승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부상자를 통해서라도 유다를 불살라 진멸시키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를 악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여도, 죽여도 떼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좀비 영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로 불길한 예언을 4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상황이 조금 나아진 시드기야 왕이 혹시 다른 예언이 내려왔나 궁금하여 예레미

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비밀히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의 면전에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라는 저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너무나 불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길함은 저주가 아닌 선민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불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먼저 선민들은 이 불길함의 이유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삼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몸이나 가족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으로써 나의 마음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나 몸을 포함한 세상과 관계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시간적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구분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배우자나 자녀가 귀하다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사장님이 무섭다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돈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던 하나님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이것을 역행해서 하나님보다 나중에 생겨난 것들에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길함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집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상대하는 순서에서 먼저 계신 하나님을 지나치고 세상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불길함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가구를 사서 조립하고 있는데 거의 다되어 가는 도중에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해체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나사까지 다 조이고 나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나쳐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상태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길함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고 머무는 상태가 유지 될 때에 1등 은혜인 평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지나쳐버린 상태에서 무언가에 마음이 붙들릴 때에는 2등 은혜로 불길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 은혜로 주어진 불길함인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방식을 고집한 것입니다. 접촉사고를 액땜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길한 마음이 일어나는 삶을 지배해보려는 주인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불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먼저 계신 하나님을 지나치고 나중에 생긴 세상에 마음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불길함의 원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몸보다도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나쳐서 멀리 있는 대상들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평안 대신에 불길함을 주시게 됩니다. 이 불길함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깨달았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불길함은 하나님을 지나쳤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고구려의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 태종이 10만 대군을 끌고 와서 고구려의 여러 성들을 점령해나가다가 안시성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구려는 당 태종의 군대를 막기 위해 말갈족까지 동원하여 15만의 군대로 대항했으나 전멸하고 3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의기양양했던 당 태종에게 안시성 같이 작은 성은 대수롭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러나 88일이나 이어진 공격에도 안시성은 견뎌냈고 당 태종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 태종은 포로로 잡은 고구려의 장수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정보를 캐냅니다. 이때에 안시성을 놔두고 다른 성부터 치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자신만만했던 당 태종은 이 조언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안시성에 발이 묶인 채로 88일이 지났고 겨울이 닥쳐 철수를 강요받게 됩니다. 당 태종 자신도 전투에서 눈을 하나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안시성 전투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생각해봅니다. 나의 마음은 당 태종이고 안시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시성을 놔두고 고구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포로가 된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당 태종은 할 수 없어서 안시성을 지나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시성인 하나님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안시성인 하나님에게서 막혀야 합니다. 안시성을 지나쳐 가라는 말은 마귀의 비법입니다. 우리 삶을 불행으로 가득 채우는 액과 살이기 때문입니다. 안시성을 지나치면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안시성인 하나님을 지나치면 우리 삶은 마귀가 지배해버립니다. 사실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마귀의 지배아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시성이신 하나님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불길함입니다.
예레미야 존재는 유다 나라의 불길함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길함을 조성하는 예레미야가 평강 다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길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지나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쳐서 풍요와 다산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가치들에 묶임으로 인해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끝내 이 불길함을 1등 은혜인 평강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했습니다. 액땜이나 액받이 액막이를 하듯이 끝내 이 불길함과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액땜

과 살풀이는 민간신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지나치고 마음에서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그대로 인정해주고 응원합니다. 액막이를 하겠다는 심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액막이와 살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길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2등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라고 유혹합니다. 안 되면 액땜을 하고 액막이를 해서 스스로를 속이게 합니다. 불길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세상을 향한다면 평강은 유린되고 삶은 액과 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2등 은혜인 불길함을 계기로 1등 은혜인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ift'라는 단어는 영어와 독일어에서 뜻이 전혀 다릅니다. 영어로는 선물이지만 독일어에서는 독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불길함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안시성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평강이라는 영토는 지켜집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을 지나쳐서 세상에서 스스로 평강을 얻으려 할 때에는 오히려 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불행한 감정을 만드는 독 기운으로 바뀝니다. 내게 허락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오직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동안에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치면 허락된 세상의 가치들은 마음에 부담을 주고 평강을 깨뜨리는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길함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불길함을 평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듦으로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 마음에서 활성화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믿음은 강요가 아닌 선택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믿기로 선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1등 은혜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가족을 향하려는 마음도 죽이고 직장을 향하는 마음도 죽입니다. 하나님을 빗겨가려는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마주할 때에 마음에서 비로소 불길함은 사라지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포기하는 순간 삶의 평강은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늘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입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2등 은혜인 불길함을 1등 은혜인 평강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에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 못지않은 불길함이 가득합니다. 불길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불길함을 평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